

‘생산자-소비자 가교’ 고흥몰, 매출 100억 돌파

11일까지 감사전…최대 50% 할인
유자·귤 등 겨울 제철 수산물 등 엄선
누적 회원 5만 돌파…판로 개척 활기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고흥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이 누적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나흘간 ‘100억 달성 감사 세일-2025 Best of Best’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고흥몰을 애용해 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고, 지역 생산자들의 판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50%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회차별로 100매씩 한정 배포되며, ID당 1매씩 발급받을 수 있다. 최대 할인 한도는 2만원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기획전 품목도 알차게 구성됐다. 고흥을 대표하는 겨울 제철 과일인 유자와 참다래(키위)를

비롯해 굴, 새우, 활어, 반건조 생선 등 겨울 식탁의 별미 수산물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로컬 농가가 정성껏 만든 가공식품 등 실제 구매 수요가 높은 ‘베스트 상품’ 위주로 상품군을 꾸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번 한정판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번 성과는 고흥군이 온라인 유

통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공격적인 마케팅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고흥몰은 개설 이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생산자와 전국의 소비자를 잇는 탄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군은 ▲입점 업체 지원 사업 확대 ▲전문적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엄격한 품질 검수 시스템 도입 ▲오프라인 홍보관 운영 ▲시즌별 특화 기획전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플랫폼 경

쟁력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노력을 소비자들이 고흥 농수산물을 더욱 쉽고 믿을 수 있게 접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그 결과 누적 매출 100억원이라는 값진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몰 매출 달성을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해 주신 농어가와 이를 믿고 구매해 주신 소비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기획전과 신규 브랜드 발굴, 품질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고흥몰을 전국 최고의 자자체 쇼핑몰로 기우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화순 전통시장, 쾌적한 쇼핑·문화공간 탈바꿈

고인돌·능주시장 5억8천만원 투입

LED 교체·바닥 보수·무대 조성 등

화순군이 전통시장의 낡은 옷을 벗기고 현대적 감각을 입히는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내년도 화순고인돌전통시장과 능주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4억3천만원)과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1억5천만원)를 통해 총 5억 8천만원을 투입해 화순고인돌전통시장과 능주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

격 추진한다.

사업의 핵심은 전통시장의 노후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용객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세부적으로 고인돌전통시장은 ▲노후 상가 LED 전등 교체 ▲시장 LED 입간판 설치 ▲상가 벽면 및 기둥 도색 ▲바닥 보수 정비 등을 통해 밝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한다.

능주전통시장은 ▲폭염 대비 대형 선풍기 설치 ▲지역 행사와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무대

조성을 통해 단순한 장터를 넘어 주민 친화형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설계를 마친 뒤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주민과 상인들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

침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단순한 물건 구매 장소를 넘어 지역 공동체 활동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심장이자 주민 생활의 터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과 예산 확보를 발판 삼아 우리 시장들이 더욱 활기 넘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상인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고인돌전통시장에 쿨링포그 31대와 대형 실린팬을 설치하고, 능주전통시장에 갤러리 창을 조성하는 등 꾸준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성군은 최근 장성읍에서 올해 신규 6곳의 ‘모범음식점’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장성군 ‘모범음식점’ 6곳 신규 지정…현판식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등 혜택

장성군은 “최근 장성읍에서 신규 ‘모범음식점’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올해 ▲남해회센터(장성읍) ▲소소한 집밥(장성읍) ▲운다(장성읍) ▲엘로우한우식당(진원면) ▲친구야(장성읍) ▲

탑앤틈(삼계면) 6곳을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기존 ‘모범음식점’ 27곳도 재심사를 통해 장성지역에는 총 33개 업소가 등록됐다.

‘모범음식점’은 현장 심사와 음식문화개선 운동주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에는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환경개선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장성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의 맛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축하드린다”며 “좋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미식도시 장성’ 완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민족음악 거장 ‘최옥삼’ 창작곡으로 부활

13일 옛 장흥교도소 ‘빠삐용zip’서

가야금산조 명인 삶 조명 정신 기려

장흥군은 8일 “오는 13일 오후 2시 옛 장흥교도소를 리모델링한 문화공간 ‘빠삐용zip’에서 음악창작곡 ‘최옥삼’이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최옥삼(1905~1956) 명인의 업적을 기리고 장흥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뜻 깊은 시도이다.

최 명인은 장흥을 건산리 출신으로, 남도 음악을 토대로 남과 북을 오가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가야금산조 유파를 완성한 위대한 예인이다.

하지만 그의 높은 음악적 성취에 비해 고향 장흥에는 생가터에 표지석 하나만 남아있을 뿐,

제대로 된 기념 공간이나 콘텐츠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겨왔다.

이에 ‘문화공감 예움’과 ‘창작공간 해우’는 최 명인의 고향에서 그의 예술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창작곡을 기획했다.

이 작품은 ‘2025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선정작으로, 전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무대에 오른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역사적·문화적 재생 공간인 ‘빠삐용zip’에서 지역을 빛낸 거장을 재조명하는 공연이 열려 뜻깊다”며 “군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주관사인 ‘문화공감 예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노형록 기자

구례군, 광주·전남 암 관리 ‘최우수기관’

구례군은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에서 열린 ‘2025년 광주·전남 암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지역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암 예방, 진단, 의료비 지원, 재가암 환자 관리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심사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은 그동안 ▲재가암환자 활력 증진 프로그램 ▲자조모임 ‘마음 나눔, 사랑 더하기’ ▲방문 건강관리 및 물품 지원 등 환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펼쳐온 결과, 이번 평가에서 ‘함께하는 시간들: 마음을 돌보는 힐링 암극복’이라는 주제의 우수 사례를 발표해 심사 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소방 연구팀은 ‘360도 촬영 기술 활용 도상 훈련’ 호평

드디어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보림제다가 (재)보성군 장학재단을 찾아 지역 인재 양성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관내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특기 적성 개발 등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다양한 장학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보림제다는 보성 차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선도 기업으로 올해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비롯해 ‘세계녹차콘테

/보성=임병언 기자

담양소방서, 구조정책 연찬대회서 ‘1위’ 차지

‘360도 촬영 기술 활용 도상 훈련’ 호평

드디어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5회 구조정책 연찬대회”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지역별 재난 특성에 맞는 실전 구조 기법과 전술을 개발해 소방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도내 20개 소방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1차 연구보고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상위 5개 소방서가 2차 발표 대회에 나선 결과 담양소방이 최종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시는 참여 독려를 위해 기능 오류를 제보한 참여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단순 개선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단, 무성의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안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23일 앱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되며, 경품 지급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해 ‘MY광양’을 가장 편리한 사용자 중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해 ‘MY광양’을 가장 편리한 사용자 중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림제다, 보성 인재 육성 장학금 ‘쾌적’

200만원 전달 나눔 실천 ‘귀감’

스트’ 금상을 훔쓰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평소 장애인 시설에 음료를 기부하는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앞장서 왔다.

서희주 보림제다 대표는 “보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지역 사회와 나누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오 보성군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기금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꿈을 지원하는 데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보성=임병언 기자